

#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아동 멘토링 경험과 의미

박혜숙<sup>1</sup>, 이경하<sup>2\*</sup>

<sup>1</sup>동양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 Experiences and Meaning of Mentoring for Multicultural Children among Lower Nursing Students

Hye-Sook Park<sup>1</sup>, Kyung-Ha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Dongya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 멘토링 활동이 예비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역량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설계는 반성적 저널과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본 질적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6년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Y시 소재 D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질문은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반성적 저널은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기 전 1회와 10회의 멘토링 활동 직후에 연구참여자 개인별로 작성하였다. 심층면담은 멘토링 활동이 모두 종료된 후 반성적 저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멘토링 활동경험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3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 다문화아동의 현실에 대한 이해, 성장을 위한 경험의 3가지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역량 증진을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meaning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ting in a multicultural children mentoring program and to find out how mentoring activities can contribute to the cultural competence of future nurses. This study was based on a qualitative research design through reflective journals and in-depth interviews. From March 20 to June 30, 2016, we collected data from 10 nurs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mentor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children.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was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ting in multicultural children mentoring? Reflective journals were created individually before participating in mentoring activities and after 10 mentoring activ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participant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ir reflective journal and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additional mentoring activity experienc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mentoring activities. The results were obtained for 3 central themes; Breaking the prejudice against cultural diversity,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Acquiring experience for the sake of growt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nursing education program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Child, Cultural diversity, Experiences, Mentoring, Nursing student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2017년 2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99만명으로 [1], 총

본 논문은 동양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Kyung-Ha Lee(Dongyang Univ.)

Tel: +82-54-630-1285 email: lkha33@dyu.ac.kr

Received June 9, 2017

Revised (1st July 3, 2017, 2nd July 6, 2017)

Accepted July 7, 2017

Published July 31, 2017

인구수의 약 4%를 차지한다 [2]. 특히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2015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의 7.4%가 다문화혼인이다. 다문화혼인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가 전체 다문화 혼인의 62.6%를 차지하고 [3], 2017년 2월 현재 결혼이주여성은 12만 8천 명에 이른다 [1]. 이렇듯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여성가족부의 보고에 의하면, 2016년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 수는 9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20.2% 증가하였고, 2007년 1만4천명과 비교하면 7배 증가한 것이다. 일반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중 74.6%가 초등학교생으로 약 7만4천명에 이르며 [4], 미취학 다문화자녀가 2015년에 12만명 [5] 임을 감안할 때, 다문화아동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문화아동은 사회적 편견과 소외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이 있으며, 학교 부적응, 학업 부진, 교우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다문화아동은 가정 내 교육의 공백으로 인해 지식과 인성 발달이 다른 또래 아동에 비해 좋지 못하며, 다문화 배경을 가진 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온전히 전해 받지 못하고 있다 [6].

이러한 다문화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교육부에서 2009년부터 시행한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기초학력 향상을 꾀하는 한편 대학생들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고 봉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7].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별 사업으로 최근 ‘1:1 희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멘토인 대학생에게 다문화이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8].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은 다문화아동 멘토링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였으나 주로 교육학과 사회학 등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6, 9-12],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 간호실무현장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간호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이며,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 간호사가 절실히 요구될 것이고, 다문화간호 수행능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만일 다문화 간호대상자를 위해 적절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문화간호사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행위를 변화시킬 수 없고 따라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13].

다문화간호는 역사적으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크리미아 전쟁에서 군인들과 오스트리아 원주민을 간호한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간호사가 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간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인지된 시점은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간호해 온 미국에서조차 1950년대 이후이다 [14].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들어서야 다문화간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문화간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며, 실제 임상간호와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15].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역량 수준은 다문화사회인 미국과 비교해볼 때 낮은 것 [16] 으로 나타나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증진을 고려할 때, 이들은 아직 임상현장에 배출되기 전이므로, 문화역량을 실천적으로 발휘하는 기술보다는 인지적·정의적 측면의 문화역량에 대한 준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17].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 경험은 멘토인 대학생의 문화역량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6, 9-12] 에 비추어 볼 때,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아동 멘토링 경험이 문화간호역량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질적연구방법의 자료수집방법 중 하나인 반성적 저널 쓰기는 글쓴이로 하여금 외부에서 전달된 지식이나 정보가 본인에게 내면화 될 수 있도록 돕는 사고화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기존 지식을 외부 지식과 결부시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18]. 본 연구에서 반성적 저널쓰기는 연구참여자의 다문화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활동과정에서 경험하는 생각의 변화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멘토링 경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반성적 저널을 분석하여 활동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그 의미를 탐색하고, 멘토링 활동이 예비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역량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목적 및 연구질문

- 연구목적: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의 의미를 탐색한다.
- 연구질문: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의 의미를 반성적 저널과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본 질적 연구이다.

### 2.2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Y시 소재 D대학교 간호학과 봉사동아리 회원이며, Y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아동 대상 ‘1:1 희망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10명의 간호대학생이다.

연구참여자 선정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직접 D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봉사동아리 회원 25명이 모인 강의실에서 Y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멘토링 활동에 참여의사를 밝힌 간호대학생 11명을 선발하였다. 이어서 이들에게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자료수집방법 및 연구참여자 선정방법을 설명하고, 대회 멘토링 활동 후 반성적 저널 작성과 필요시 멘토링 활동 종료 후 추가 심층면접이 있음을 알린

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명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의사를 밝히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동의서를 제출한 10명의 간호대학생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가 10명으로 소수이지만 질적연구에서 사례 수가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연구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 소수 사례를 대상으로 심층적 연구를 지향하는 질적연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연구의 폭보다는 깊이를 더 중시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한다 [19].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멘토링 활동 전에 반성적 저널 작성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질적인 저널을 확보하였으며, 멘토링 활동 후 일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충분히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대 1로 결연을 맺은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아동 멘티와 간호대학생 멘토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연구결과에 제시된 연구참여자의 반성적 저널에 언급된 멘티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Mentor				Mentee			
ID	Age	Grade	Gender	Age	Grade	Gender	Mothers' Nationality
A	19	2	F	7	1	M	Vietnam
B	19	1	F	8	2	F	Vietnam
C	19	2	F	8	2	M	Vietnam
D	18	1	F	9	3	F	Vietnam
E	18	1	F	7	1	F	Vietnam
F	18	1	F	8	2	F	Cambodia
G	18	1	F	7	1	F	Vietnam
H	18	1	F	7	1	F	Vietnam
I	18	1	F	8	2	F	Vietnam
J	19	2	F	7	1	F	Vietnam

### 2.3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는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되었다(1041495-201603-HR-03-01). 연구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 비밀보장과 익명성, 자발적 참여 및 중단 가능성, 연구 후 반성적 저널 및 심층면담 자료의 폐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다.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총 11회의 반성적 저널은 개별적 멘토링 활동 후 연구참여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메일로 수집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반성

적 저널은 익명 처리하여 저장한 후 받은 편지함에 즉시 삭제하였다. 심층면담 시 내용의 녹음 및 메모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였으며, 필사한 내용을 입력할 때에는 이름 대신 ID로 저장함으로써 면담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였다.

### 2.4 연구자의 질적 연구 훈련

연구자는 모두 질적 연구 관련 수업을 이수하였고, 연 2회 이상 질적 연구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연구회 활동을 통해 질적 연구 훈련을 받았다. 본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 전문가 1인으로부터 연구참여자 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연구설계 전반에 걸친 검토를 받았으며, 연구결과 분석과정에서 2차례 전문가 협의를 거쳤다.

### 2.5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반성적 저널과 심층면담을 통해 2016년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이루어졌다.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 시작 전과 10회의 다문화아동 가정방문을 통한 멘토링 활동 후에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 진행 방법과 반성적 저널쓰기 등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반성적 저널은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참여자가 멘토링 활동과정에서 경험한 것, 느낀 점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반성적 저널은 개인별로 회당 1~3장으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 A4용지 186장 분량이었다.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 종료 후 반성적 저널을 통한 의미 분석이 모호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한 연구참여자 3명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원하는 동아리실에서 실시하였다. 집단 심층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시점까지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 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은 메모와 녹음을 통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는 녹음한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A4용지 13장 분량이었다.

###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분석적 귀납방법을 통하여 분석하는 개방식 코딩방법을 사용하여 자료 속에 함축된 의미에 맞는 주제나 용어를 찾거나 만들어내는 Kim [20]의 질적 연구 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반성적 저널과 심층면담 내용을 진사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다문화화에 대한 인식, 멘토링 활동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발췌하고 주제어를 부여한 후 예비범주를 만들고 이에 따라 전체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주제어를 재범주화하고, 주제어에 적합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분류,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한 연구참여자 검토 작업과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전공자 1인의 조언과 검토를 통해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3. 연구결과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은 3가지 주제에 따른 7가지 하위주제의 범주로 분석되었다. 3가지 주제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 ‘다문화 아동의 현실에 대한 이해’, ‘성장을 위한 경험’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ting in mentoring activities for multicultural children: Themes and sub-Themes

Theme	Sub-theme
Breaking the prejudice against cultural diversity	An ordinary household that is not different from our home
	Someone like me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children	Difficult due to insufficient Korean language ability
	Lack of learning support resources
	Living guidance other than studying
Experience for growth	Opportunities to grow together
	A warm nurses without bias

### 3.1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

연구참여자는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가정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가정'이고, 다문화아동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즉, 멘토링 활동 참여 경험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 3.1.1 우리나라 가정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가정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는 다문화가정은 문제가 많거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다문화가정이라 하면 동남아시아 아내와 한국 남성인 남편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정의 아닌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가 나는 한국 남성들이 나이가 칠 때까지 결혼을 못하면 국제결혼을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겼다.(C, 활동 전 저널)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베트남에서 결혼하러 온 여자들만 떠오른다.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기억은 안 나고 베트남만 떠오른다.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는 사회일 텐데 어째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무의식중에 외국인 전체가 포함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것조차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가정은 이렇다.(J, 활동 전 저널)

다문화사회, 다문화아동, 다문화가정에 대해 '동남아에서 온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한국 남자와 결혼한 가정', '풍족하지 않은 경제 상황',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아이들'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H, 활동 전 저널)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을 통해 연구참여자는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 가정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편견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처음엔 다문화가정이라 집이 조금 가난하거나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집에 가본 후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정민이네 집은 매우 깨끗하고 넓었고 부모님 또한 사이가 매우 좋으셨으며, 나에게 예의를 갖추시며 이야기 하셨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내가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활동이었다.(I, 1차 멘토링 활동저널)

내가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것은 은지의 집이 내가 짐작했던 집이 아니라 그 옆에 따로 있는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자그마한 집이었다는 것이다. 시골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다문화가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한 순간 멈춰질 정도였다. 내가 놀랐다는 사실을 은지와 은지의 가족이 몰랐으면 했다.(중략)시간이 남아 함께 멘토링을 하는 I의 멘티집을 방문했다. 그 멘티는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언니들이 나이가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도 각자의 사정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J, 1차 멘토링 활동저널)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영준이도 아이다웠고 순수하고 예뻐다. 제일 중요한 건 다문화가정이 생각보다 너무 평범했다. 너무 평범했고 우리나라 가정어랑 다를 게 없었다. 그래서 내가 편견 없이 아이들과 어머니께 다가갈 수 있었다.(A, 1차 멘토링 활동저널)

처음에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의사소통부터 문화나 생활습관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멘토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다문화 멘토링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변한 것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각이 생긴 것이다.(D, 심층면담자료)

### 3.1.2 나와 똑같은 사람

연구참여자는 대중매체에서 비취지는 모습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아동에 대해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큐멘터리나 소설 같은 곳에서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차별,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이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런 시선들과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다. 속으로는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난 저런 사람들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난 저 사람들과는 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해왔던 것 같다.(A, 활동 전 저널)

다문화라는 세 글자가 저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져 좀 꺼려지기도 했고 저를 멀찌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주위에서 다문화 친구들이나 가정을 접해본 경험이 매우 적었고, 그나마 많이 접하였던 것은 텔레비전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매체뿐이라 저에게 대중매체에서 비춰진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다문화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D, 활동 전 저널)

연구참여자는 다문화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다문화아동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아이와 같이 활동하면서 저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어렸을 적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숙제를 내주었을 때 제가 어렸을 적 썼던 잔머리 기술을 아이가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엄마한테 절대 안 걸릴 줄 알고 했던 행동들이었는데 위치가 바뀌고 보니 눈에 보이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아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B, 2차 멘토링 활동저널)

다문화가정의 아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거주했던 아이기 때문에 언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습습득 능력이 조금은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나를 조금은 자책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따라와 주고 발전해가는 것 같기 때문이다. (I, 4차 멘토링 활동저널)

헤림이를 만나고 잘 적응해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성적, 교우관계를 보면서 나의 편견이 깨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멘토링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가졌기 때문입니다.(G, 심층면담자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조금 무서웠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런 편견들을 없애준 활동이었다.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준 활동이었다. 우리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처음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은 나의 어린 시절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다문화 아

이들도 나와 똑같구나하는 것을 느꼈다.(D, 심층면담자료)

### 3.2 다문화아동의 현실에 대한 이해

연구참여자는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문화아동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 학습지원의 자원 부족과 공부 외에 생활지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 3.2.1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어려움

연구참여자는 다문화아동이 또래보다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친구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정민이에게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읽어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정민이가 수학문제 읽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문제 자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공부 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민이에게 한글공부가 조금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I, 3차 멘토링 활동저널)

정민이는 한글 문장시험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하며 시무룩해 있었다. 자신은 못한다며 한글공부는 못해서 하기 싫다며 매우 자신 없어 했다. 평소 친구들과 자신을 스스로 비교하고 자존감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았다. 정민이가 혹시 자신이 다문화가정이라 그런 것이라 생각할까봐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다.(I, 6차 멘토링 활동저널)

정민이가 전학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유를 물으니 학교 친구들은 모두 자기를 싫어한다고 했다. 여자애들이 자기와 안 놀아준다고 하며 다른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이유 없이 일어나는 따돌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정민이가 다문화가정이라 그런 것인지, 말을 아직 또래친구들보다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들었고 너무 속상했다.(I, 10차 멘토링 활동저널)

#### 3.2.2 학습지원 자원의 부족

연구참여자는 다문화아동의 가정환경이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안타까웠다. 부족한 학습지원 자원 속에서나마 멘티의 학업성취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지도방법을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멘토링 활동결과 멘티가 이론 학업적 성취를 보며 연구 참여자는 뿌듯함을 경험하였다.

지원이의 부모님은 주말에도 일을 나가시고 할머니는 동생을 보고 집안일을 하신다. 그렇게 때문에 지원이는 혼자 숙제를 해야 했을 것이고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쉽게 풀 수 있는 건 계산기였을 것이다. 만약 지원이와 함께 숙제를 봐주고 어려운 산수를 설명해줄 어른이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F, 6차 멘토링 활동지널)

정민이 어머니는 항상 공부를 끝낼 때쯤 들어오셔서 공부를 많이 했냐고 물어보신다. 나는 어머니께 오늘 공부한 것을 보여드리고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지 말씀드렸다 그러나 정민이 어머니께서는 항상 공부를 더 하길 원하신다. 정민이는 그때마다 오늘 무엇을 공부했는지 말씀드리며 너무 많이 공부했다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또 공부를 시키셨다. 나는 너무 안타까웠고 이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다.(I, 8차 멘토링 활동지널)

오늘은 동희가 학교에서 늦어져서 원래 시작시간보다 삼십분 정도 늦게 했다. 동희를 기다리면서 어머니랑 카페에서 동희 얘기도 하고 베트남 얘기도 하며 이것저것 대화하다보니 어머니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중략) 동희 어머니도 계산을 할 줄 아시는데 베트남의 연산방법과 한국의 연산방법이 다름뿐더러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다고 하셨다.(E, 4차 멘토링 활동지널)

끝나고 왔는데 조금 슬펐다. 아직 내가 가르쳐 줄 건 많은데 내가 방법을 몰라서 더 가르쳐 줄수가 없어서 슬펐다.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고 영준이에게 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A, 2차 멘토링 활동지널)

미술을 좋아하는 세진이지만 계속 색칠공부만 하면 지루해 할 것 같아 저번에 빙고게임을 재미있게 했던 것이 생각나 색칠공부를 하기 전에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빙고게임을 했다. 영어단어를 어려워하는 세진이었는데 게임으로 영어단어를 접하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모습이였다. 앞으로 공부할 때 게임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H, 5차 멘토링 활동지널)

정희는 처음 봤을 때보다 학업적인 면에서 많이 성장했음이 보였다. 그런 정희의 성장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서 정희가 더욱더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D, 6차 멘토링 활동지널)

### 3.2.3 공부 외에 필요한 생활지도

연구참여자는 어른에 대한 태도나 인사, 언어습관 등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문화 가정에서 부족한 기본생활습관지도 및 훈육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다.

정민이의 아버님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다. 그런데 정민이는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나가지 않았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인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돌아오면 나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는 것이라고 했더니 인사를 했다. 정민이가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I, 4차 멘토링 활동지널)

정민이 어머니께서 간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민이가 “참외 싫어! 안먹어! 맛 없어! 가져가!”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심술을 부리는 것이였다.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셨고 그냥 나와 철민이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황급히 건네주시고 나가셨다. 가끔 정민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든다. 정민이에게 부모님께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예의에 대해 조금 더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I, 9차 멘토링 활동지널)

오늘 생각한 것은 헤림이의 말투이다. 헤림이는 나에게 ‘언니 사줘, ~있어?, ~가져가’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래서 공손하게 부탁하는 법과 말하는 법을 중간 중간 알려주어야겠다. (G, 7차 멘토링 활동지널)

### 3.3 성장을 위한 경험

연구참여자는 멘토링 활동이 다문화아동인 멘티 뿐만 아니라 멘토 자신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모든 환자들을 평등하고 편견 없이 대하는 따뜻한 간호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

였다.

### 3.3.1 함께 성장하는 기회

연구참여자는 한 아이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멘토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경험하는 동시에 다문화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하였다.

내가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이유는 간단하다. 단체를 방문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한 아이와 가정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는 아이에게, 아이는 나에게 서로 좋은 영향을 꾸준히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나 자신이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자신감도 기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 수업이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된다.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만큼 부담감도 밀려오지만 이것은 매우 기분 좋은 무게감이다.(F, 활동 전 저널)

그들의 학업에도 도움을 줘야 하지만 자신감이나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진 못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같이 공유해서 아픔을 나누고, 진솔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선생님이자, 나이는 다르지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D, 활동 전 저널)

다문화아동을 만나면서 다른 문화를 배우는 기회와 다문화아동 어머니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는 등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가지며 연구참여자는 문화지식이 증가하는 경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다문화아동과 가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보다 한참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이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가 베트남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었을 때 제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게 되었고 다른 나라를 아이들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베트남 음식도 오늘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익숙한 것이 아

닌 다른 나라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이와 아이의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B, 1차 멘토링 활동저널)

다문화가정을 가진 제 친구들에게 힘든 점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멘토링을 하면서 내가 그냥 넘기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한국에 살면서 제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특히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저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 같아요.(G, 심층면담자료)

### 3.3.2 편견 없는 따뜻한 간호사

연구참여자는 멘토링 활동이 다문화아동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을 대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알게 되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인종, 국적, 장애를 떠나 따뜻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바라보고 보살필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문화가족을 대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많이 배워 간호사가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E, 활동 전 저널)

미래에 제가 간호사가 되면 다문화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인종이 다른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될 기회가 많은 텐데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면서 웃으며 먼저 다가가 함께 더불어 지내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D, 활동 전 저널)

연구참여자는 멘토링 활동을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추후에 다문화 환자를 대할 때 거부감 없이 유연성 있게 편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간호사를 하게 되면 다양한 직업과 문화를 가진 환자를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간호사는 그런 다른 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멘토링을 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추후에 간호사가 되어 다른 문화의 환자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위화감 없는 편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D, 심층면담자료)

멘토링을 하는 동안 아이의 심리상태를 알아보는 능력과 아이의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도 많이 배우게 되었다. 아이의 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또한 외국인과 대화에 있어서 유연성을 배우게 된 것 같아 미래에 간호사가 되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I, 심층면담자료)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다문화아동 멘토링 과정에서 경험한 바의 의미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아동 멘토링 경험은 이들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Lippmann은 고정관념은 세계를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면서, 세계를 일정한 방식으로 질서 지우고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과정으로,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한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가지기 쉽다고 하였다 [21]. 어릴 때 어머니가 일본인인 친구가 있었던 한 명의 연구참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과 지속적인 만남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다문화 접촉 경험의 부족이 이들의 고정관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인종적, 계급적, 젠더적,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은 동남아인과 한국인과 같은 특정 인종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인종적 고정관념, 다문화가정은 하위계층일 것이라는 계급적 고정관념, 한국인 남편과 동남아 아내로 구성된 가정이라는 젠더 고정관념,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지역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9].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부족하고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간호대학

생은 다문화가정과 아동에 대해 인종적, 계급적, 젠더적, 지역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 멘토링 활동을 하기 전에 간호대학생은 다문화가정은 문제가 많거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다문화아동은 언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 멘토링 활동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 가정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편견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다문화아동과 지속적인 멘토링 과정에서 자신의 어렸을 적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문화아동도 나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성장하는 아동의 모습을 보면서 다문화아동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책망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과 아동에 대해 인종적, 계급적, 젠더적, 지역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간호대학생은 다문화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다문화에 대한 생각들이 편견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멘토링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적 한계와 멘티 어머니들이 특정 인종에 한정되기는 하였지만, 특히 멘토링 활동을 통해 아동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아동 멘토링 경험을 통해 다문화아동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는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22].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아동의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이기 보다는 또래보다 다소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수학공부를 힘들어 하는 다문화아동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아동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이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친구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아동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1대 1 멘토링 활동은 지속적인 학습지도 및 놀이를 통해 언어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으로 사료된다.

멘토링 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은 다문화아동에게 학습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혼자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자녀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거나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어머니 경우에는 간호대학생에게 놀이보다는 학습지도를 더 많이 해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모국어 베트남과 연산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어려워 학습 지도를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어머니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이 아동의 한국어 능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부모의 요청도 있었지만 멘토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간호대학생은 학습지원에 큰 비중을 두면서 아동의 학업 성취를 촉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학습지도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은 학습지도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 하고 다문화아동의 학업적 성취를 보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활동 위주의 멘토링에서 멘토-멘티의 관계는 교사-학생의 관계와 유사하게 상정하게 되고 학교교육을 모방하면서 둘 간의 권력적 위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는 멘티의 능력을 키워주기 보다는 학업성취를 통한 성공과 적응이라는 학교교육의 질서와 신화를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9]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멘토링의 주요기능 가운데 역할모델로서의 기능은 멘토가 멘티의 바람직한 역할모형이나 준거의 틀이 되어주는 기능이다. 멘토는 역할전수자로서 멘티에게 적절한 행동방식과 태도, 가치관을 전해줌으로써 멘티의 역할수행을 돕는다 [23-24].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멘토링 과정에서 다문화아동의 어른에 대한 버릇없는 태도나 인사, 언어습관 등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역할모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과 다른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제와 다문화 어머니가 갖는 역할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다문화가정에서 부족한 기본생활습관지도 및 훈육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다문화아동 멘토링 경험은 참여한 간호대학생에게도 성장을 위한 경험이 되었다는 점이다.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는 한 아이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멘토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다문화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아동과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다문화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문화아동을 더 많이 이해하고 다문화가족을 대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인종, 국적, 장애를 떠나 따뜻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바라보고 보살필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다문화 멘토링 활동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문화아동과 다문화가정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연구참여자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멘토링 과정에서 나이 어린 멘티에게서 배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연구참여자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하고 다문화아동과 접촉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들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멘토링은 멘티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반성적 성장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25]. 다문화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들은 멘티와의 지속적인 문화 접촉과정에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하고 자기 반성적인 성찰과정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상호문화적인 대면 상황에서 키워질 수 있는 상호문화역량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6].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는 경험 속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 역량을 함양하고 지속적인 멘토링 과정에서 획득되는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 [24]은 미래 간호사에게 필요한 문화간호역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6]. 따라서 다문화 멘토링 활동은 간호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간호역량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아동 멘토링 경험 의미를 알아본 것이다. 다문화아동 멘토링 경험은 크게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 ‘다문화아동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성장을 위한 경험’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은 다문화아동과 1:1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과 아동의 현실을 이해하며, 다문화아동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아동 멘토링 활동은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접촉과 상호작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다문화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다문화가정과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앞으로 문화간호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멘토링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추후 간호대학생이 멘토링 활동 중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해나갈 것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건강관리와 같은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간호학 전공교과목을 아직 많이 접하지 않은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전공자와의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점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고학년인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타 전공자와 간호학 전공자간의 멘토링 경험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Justice, Monthly statistics of immigration policy, p. 3, Feb. 2017[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moi.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22&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http://www.moi.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22&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 (accessed Apr. 5, 2017)
- [2] Statistics Korea, Total population[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9](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9) (accessed Apr. 5, 2017)
- [3] Statistics Korea, Multicultural Population Statistics in 2015, p.14 [Internet] [cited Press Releases, Nov. 16, 201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1/index.board?bmode=read&aSeq=357476](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1/index.board?bmode=read&aSeq=357476) (accessed Apr. 5, 2017)
- [4]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Youth Statistics in 2017, p. 14 [Internet] [cited Press Releases, Apr. 17, 2017] Available from [http://kosis.kr/ups/ups\\_02List.jsp](http://kosis.kr/ups/ups_02List.jsp) (accessed Apr. 5, 2017)
- [5]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Multicultural Student Education Support Plan in 2015 [Internet] [cited Press Releases, Mar. 17, 2015] Available from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opType=N&boardSeq=58722> (accessed Apr. 5, 2017)
- [6] S. O. Park, “A study for planning and Managing a Mentor Program for Multicultural children: Based on a real case”,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vol. 14, pp. 45-78, Apr. 2013.
- [7]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ulticultural Student education support plan in 2011, [Internet] [cited Press Releases, May. 25, 2011] Available from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3&lev=0&statusYN=W&s=moe&m=030209&opType=N&boardSeq=33609> (accessed Apr. 5, 2017)
- [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cs/mcf/cs\\_mcf\\_f001.do](http://www.mogef.go.kr/cs/mcf/cs_mcf_f001.do) (accessed Apr. 5, 2017)
- [9] K. W. Yoon, & J. E. Uhm, “A Qualitative study of cross-cultural mentoring -Mentoring as the everyday practice of multiculturalism-”,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19, no. 3, pp. 101-124, 2009.
- [10] K. Y. Kim, “A case Study of Mentor’s “Accompanied Growth” in Multicultural Mentoring Program”,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7, no. 1, pp. 29-50, Mar. 2014.
- [11] H. N. Kim, & H. S. Kim, “A study on mentor participated in a multiculture mentoring program: using focus froup interviews”,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vol. 5, no. 2, pp. 91-113, 2012.
- [12] M. S. Park, & Y. S. Kim,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Mentors through the process of multicultural mentoring program”, *Journal of Learning-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3, pp. 967-989, 2016.
- [13] G. H. Jeong, K. A. Nam, Y. H. Kim, H. S. Park, & S. H. Kim, *Transcultural Nursing*, pp. 13-210. XMLARCHIVE, Chuncheon, 2011.
- [14] P. E. zander, “Cultural competence: analyzing the construct”, *The Journal of Theory Construction & Testing*, vol. 11, no. 2, pp. 50-54, 2007.
- [15] J. Y. Min, *Multicultural nursing experience in Korea*. Hally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16] E. M, Lee, & S. H. Kim, “Influence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Sensitivity on Inte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of the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4, pp. 459-468,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4.459>
- [17] I. S. Lee, & J. Y. Cho, “A Study on the Cultural Competency and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 283-290,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1.283>

- [18] J. Bruner, "The Role of Reflection in Learning to Teach", In L. Valli(Ed.), *Reflective teacher education*, pp. 139-146.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19] H. F. Wolcott,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age, London, 1994.
- [20] Y. C. Kim,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pp. 10-694, Academypress, Paju, 2016.
- [21] R. Dyer, *The matter of images: essays on representation*(second edition), Routledge, London, 2002.
- [22] H. Y. Cho, D. H. Seo, & S. H. Kwon,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ren of Migra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18, no. 2, pp. 105-134, 2008.
- [23] K. E. Kram, "Phases of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6, pp. 608-625, 1983.  
DOI: <https://doi.org/10.2307/255910>
- [24] H. M. Kang, *A Study on Building Multicultural Competencies for Multicultural Mentoring Participants*. Inh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25] J. H. Lim, & B. S. Park, "The study on experiential meaning of multicultural mentoring as an intercultural learning", *Youth Culture Forum*, vol. 43, pp. 86-108, July 2015.  
DOI: <https://doi.org/10.17854/ffyc.2015.07.43.85>
- [26] S. K. Oh, & M. S. Kim, "Exploring the intercultural competency of mentors who participated in multicultural mentoring", *Journal of Multiculture & Peace*, vol. 40, no. 2, pp. 116-133, Aug. 2016.  
DOI: <https://doi.org/10.22446/mnpisk.2016.10.2.006>

**이 경 하(Kyung-Ha Lee)**

[정회원]



- 2004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석사)
- 2007년 8월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과학교육, 다문화교육, 영아교육

**박 혜 숙(Hye-Sook Park)**

[정회원]



- 198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과학과 (간호학석사)
- 200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과학과 (여성건강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간호, 문화간호, 보완대체요법